

癸巳年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 新年辭

계사(癸巳)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친 여러분, 그리고 본지를 애독하시는 타산어는 여러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진(壬辰)년을 보내고 계사(癸巳)년을 맞으며 존친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존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 많은 일을 해내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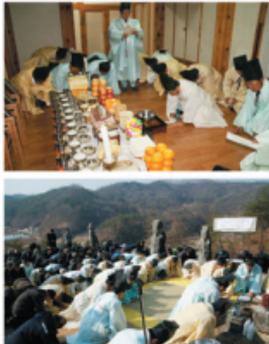
우리는 지난해에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총합금 탄신 8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앞으로 남은 총합금 탄신 800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금년 상반기 중 무사히 마쳐드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총합금 배위 이신 죽주박씨 할매님 재산을 훌륭하게 재장비하는 등 계획된 공사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존친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서 감사드립니다. 존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안동김씨는 대동보를 발간하고자 현재 수단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안동김씨대동보는 1979년에 발간(기미보) 이후 33년만에 대동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현재의 추세로보아 책으로 된 대동보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엔 접수하는 수단사를 기초로하여 앞으로 인터넷 쪽보도 운용할 계획이니 안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대동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대 성취 문종 영의미를 구성하여 운영 준비하며 우리 안동김씨도 이 영의미에 가입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존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친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은 무료  
안동김씨대중회 회장  
김 병 희 올림

## 총합금 2012년 세향봉행



총합금 2012년 추계 세향이 안동시 녹전면 능봉 총합금묘소에서 250여 명의 자손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화성, 수원, 청주, 대구, 전주 등인원은 버스로 도착하였고 기타 공인은 타고 총수단을 이용하여 정일(9월 17)과 당일에도 도착하여 세향을 올렸다. 집결하게 차려진 제수를 올렸고, 좌측부 총합금 배위인 내령국대부인 세향 도한 담일 우안에도 올렸다. 세향을 마친 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소재 산당에서 총합금 탄신 800주년 기념사비 제막행사를 간소하게 거행하였다.

행사분정 상계 6대는 初獻官(寅)在勳, 亞獻官(辰)泰永, 終獻官(戌)天會이며  
총합금(寅)在光, 亞獻官(辰)泰文, 終獻官(戌)在正, 陳設(寅)仁植, 大祝(辰)相天, 贊者(寅)東洙, 贊引(辰)泰樂, 奉香(寅)在源, 奉香(辰)福會, 司得(戌)完會, 封爵(寅)斗會, 奠爵(辰)男會, 侍到(寅)在漢, 道日, 奠會 대중회장이었다.  
남령국대부인 분정은 初獻官(寅)弘默, 亞獻官(辰)顯秀, 終獻官(戌)在英, 贊者(辰)泰文, 奉香(寅)在九이며 기타는 총합금과 같음.

## <공고>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2013년도 안동김씨 대종의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존친 여러분께서는 인건 존친과 상호연락하여 대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3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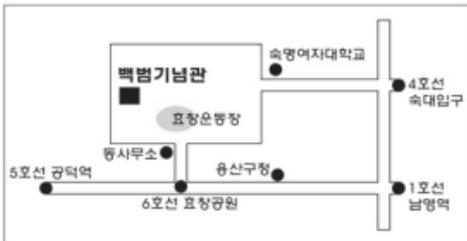
▶ 장소: 백범기념관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내)

▶ 전화: (02)799-3421

▶ 당일회비: 30,000원

▶ 의의안건

- (1) 2012년도 회계결산 승인
- (2)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 (3) 2013년도 사업계획수립
- (4) 기타안건 토의



## 알려드립니다.

### 준계 시향 일정표

행사 선조님	행사일	장소	비고
判書公(諱愷)之妻 大提學公(諱承用)之妻 評理公(諱厚)之妻 都事公(諱七)之妻	양 4월 두 번째 일요일	墓所 전남 김진공 직현면 도리리 선 105 廣書  전남 김진공 군동 면 금강리 608	010-3714-0066 (김종욱-회장)
大提學公(諱)之妻	음 3. 14	전남 나주시 금현면 죽촌리 94 (삼촌)	010-4270-0006 (김영준-회장)

### 표창대상자 추천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아래의 같은 종안을 표창하고자 하오니 2013년 2월 28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조유업 계승, 효행이 뚜렷한 종민-파종희장 또는 지역총회회장 추천  
2. 학위취득 또는 고시합격 등=관련 서류제출  
제출서류(2할 해당)  
가. 학위증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나. 이력서 1부(과, 함양표시 사진 부착)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장학생 추천

안동김씨 장학사업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장학생추진을 바랍니다. (2013년 2월 28일까지 접수분만을 실시함)  
1. 대상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2. 장학금지급인원: 10명 이내  
3. 장학금액: 1인당 00만 원  
4. 제출서류: 파종희 또는 지역총회 회장 비추천 장학생추천서외 의함  
5. 기타 자세한 것은 대중회 문의  
TEL: 02-2244-3717







## 김구 자서전을 읽고 - 채무희-



신성개 서 봉하  
하고 있어  
하 시어  
집 주시  
필의 이  
마 기 풀  
아 지 켜

에 선생님의 진면목을 알아야 한다.  
신성개서 해산선에서 서대령, 삼수, 잠진, 후정, 자성 등을 다니시면서 새와 동물, 물고기와 나무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산을 위해 이 숲을 보호하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신성개서는 남과 달랐다.

그는 곧 몸을 일으켜 마죽을 향해 안개를 헤치고 한걸음 한걸음 걸어 들어가 자기를 낳으신 것을 탄복하신다.

마죽사 생활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절하는 방

법을 자세히 한 번 보자.

“불교에서 말하는 절에는 ‘반배’와 ‘오배부지’라는 큰 절이 있는데 여거서는 본래 대에서 이야기할 때는 반배 선생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이며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르면신가를 알 수 없다. 불가사리 말하는 절하는 처하는 말하지 않았다. 절을 하는 중에 합작례를 올리게 되는데 합작례란 부처님 발을 들어 올라도 예를 표시하는 것으로 양 손바닥을 위로 올려 귀뒀기고 올리면서 부처님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내 머리를 부처님 발 밑에 놓는 거보므로 하는데 삼대방의 가장 낮은 방에 극진한 정성을 표하는 동시에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표현이다.”

나는 신성개서 이 때 독도하셨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일시정무의 활을

쓰는 한인이 되어도 좋다는 마음까지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대원군의 해국정책 때문에 일본제국의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할 하지만 실은 1645년 2월 소헌세자의 개항의 꿈이 인조의 어리석음과 친명정책으로 모와사상에 몰든 사대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백성의 신분은 사농공상으로 구분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의 신분제도이지만 상민을 천시하면서 상업을 위축시키고 국제무역은 중립의 통제를 받으며 단속화 되었다. 상민들은 단속화 제 장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사만 하면서 돈만 벌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도였다. 2012년 2월 29일 제 징보를 얻는 것이 끊긴 것이다. 채국정부는 대원군 200년 전 인조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때 소헌세자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백발같은

신 분이 세 번까지 무독담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남의 나라인 상태까지 가서 일시정무를 수립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도전과 역전의 원리’라고 했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대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슬기로운 이를 결코 할 수 있었던 민족’은 물론 소말리아인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시련을 정량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금 유래없는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음은 그 중앙에 대한민국의식정무가 있었고 그 곳에 백발 김구 선생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외부, 즉 왜로부터의 도적인 요인이 강하고 강타해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 내부의 의지와 결

적자는 인종시절인 출생으로 50년대에 인종시 농촌지도사 지원지도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60년대에 김원연의 산마물재중요직을 가질 운명이다. 교직에 몸담던 당시 대우 대학교 교장으로 청나라대학원생서 퇴임할 때 육조근정훈장을 받은 교육자이다.



동성선 (童蒙先覺)의 첫머리에 나오는데 ‘말 중’에 ‘하늘’과 ‘광 사’의 만물 지중이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天地之間貴者唯人이 最貴하니)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니 어려운 인과(因果)관계에 의하여 태어난 것인자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람(人間)이란 양과 음(男女)의 이성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 음의 세계에 서 10여 개월 가까이 머물러 있는 기간동안 할 생명체로 성장하여 이 세상 밖에 나온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능이 발달한 고등동물이며 서서 다니고 말과 글을 사용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앞선 사람이나 부처를 구상하여 찬양하여 찬집단을 구성한 것이 현실사라고 보는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 구성체는 가족을 단위로 하여 부모, 자식, 매니저, 손자, 손녀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올바르게 생

장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본다는 자식들보다 깨닫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생각이고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산업화, 민주화 사회로 말미암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여유가 없어 바쁜 상태 속에서 살다보니 자식들의 교육이 권리와 달라 인식교육은 제쳐놓고 만능위주 내지는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교육이 되다 보니 과학적인 교육이 없는 몰타도 사립이나 교육에 존재하는 형제 관계는 없다. 현재 형제 관계는 산업화 분야에서, 특히 아이티(IT)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으뜸이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옛 조상들로부터 품방의유신(東方禮儀之國)이라는 유산을 이어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렇게도 불우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듯 못하여 현식교육을 먼저 못할 지경이다. 일부 무예(無禮)한 젊은 세대들의 행태는 목불인견(不忍見)할 때가 많다. 이런 때에 사립이나 사립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 맞는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병행해서 인성(仁性)을 기르는

## 身言書判의 考察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옛 중국 당나라에서는 관리 등용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즉 신수(身手), 말, 글, 문, 판단력 즉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중시하였다고 한다.

첫째, 신(身)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몸이다.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 몸이 부모님의 몸임을 깨닫고 항상 조심하고 보존함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부모님한테서 받은 항상 자식들에게 평소시하는 주의의 말씀을 하신다. 내 몸에서 피를 내면 부모님의 피를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하며 반듯하고 예의바르고 겸손한 몸가짐을 지니는 것이 부모님들이 원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말(言)은 말로써 뜻을 나타내는(言以志) 것이므로 마음을 정확하게 하고 말과 말 사이는 적당히 피우며 더듬어서는 안 된다. 말은 유창하면서도 예의바르게 하여야 하며 내 머리에 축적된 생각과 상대방에게 소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말인도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말 한마

디로 천년 빛을 길든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그만큼 말이 지기의 인격과 신뢰를 짓는다는 본령을 깨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을 귀가 들어오지 않으니 다른 사합의 말을 필요할 때만 간추려서 듣고 할 말은 그의 반대쪽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셋째, 글(書)은 손으로 쓰는 문자이다.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글로써 정제하는 방법(文以正)이다. 메시지를 분명하고 그냥 지나치면 문자로서의 생기가 없고 문자의 힘이 약하면 문자의 힘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글은 글로써 하는 의사 표현이기에 반듯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더 중요할 것은 글씨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글씨에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면 글이 중요하며 말보다 훨씬 잘 들어올 질 수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판단력을 키우기 위하여 감동할 줄 수 있다. 글을 잘 쓰게 하려면 부모, 형제, 선생님에게서 자식과 제자에게 평소 독서를 많이 하여 실력을 쌓아서 기승전결(記

承轉結) 즉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요약방법을 익혀야 한다.

넷째, 판(判)은 ‘조제다. 가려다. 꼭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물의 진위, 선악, 미추 등을 생각하여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끊임없이 모든 대항에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과의 연속이다.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영리한 것이라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의해서 우의 일이 달라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풍부한 경험과 학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화를 이루어야만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삶을 합리적으로 되게 한다. 우리들의 몸은 큰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로 받은 것으로 끊임없이 자라서 몸과 말의 예를 갖추고 상대방이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글을 배우고 배운 지식으로 생활하고 판단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있어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사범과 국가에 쓰임받기 위하여 되도록 키워야 할 것이다.

【金在康 著】

# 감천유림(물계서원 보존회) 연차회의 참석



지난해 12월 17일(음 11월5일 토요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소재지 음식집에서 물계서원을 관리하는 감천유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서는 연례보고와 물계서원 복원문제가 본격적으로 토의되었다. 물계서원 복원은 유림에서 계획을 세워 예산군에 요청하기로 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기금 확보는 풍산갑차와 우리 안동갑차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물계서원에는 송림공을 주

벽으로 도시고 있고 풍산갑차 두 분과 우리 안동갑차 문은공(鄭 九壽)을 모시고 있으며 대원군의 서암할아버지에 의하여 해월면 이후 현재까지 복원 및 복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대종회장장과 사무총장, 안동총친회 康珠희장(대종회 부회장)이 참석 하였다.

## 하 음

- 前 前영공종회장 (按) 俞潤 大종의 고문에서 1월 3일에
- 前 大종 회사부 총장 (翼) 俞命 大종의 고문에서 1월 15일에 별 세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성금을 보내주신 친친께 감사드립니다. (2012. 10. 31 ~ 2013. 01. 21)

- 평생회비
  - 20만원: (翼)철홍(부산), 재식(성남), 경희(대구) (鄭)형길(와성)
    - 計: 800,000원
  - 3만원: (按)이희(서울), 홍희(진천), 상연(서울) (按)창희(서울), 태수(대구) (翼)용택(영주), 영교(청주) (鄭)기희(와성)
  - 2만원: (按)규발, 홍욱(서울), 대운(영양), 천용(연안), 재용(부산) (翼)경희(서울) (按)성희(청주), 순도, 재국(서울), 성희(보령), (翼)용주(영주), 재환, 재준, 우희, 용식(서울), 수홍(수원), 재하(부산), 태범(양주), 용희(용인), 재택(논산), 희석(고창), 현철(일산), 정희(연천), 철희(예천) (鄭)대용(서울), 태성(대전) (鄭)규연(안양), 규태(서울) (鄭)태형(철원), 규빈(서울) (正)재운(시흥)
- 천조금
  - 20만원: (按)창희(와성)
  - 10만원: (翼)상홍(서울)
  - 5만원: (翼)용해(인천), (鄭)홍희(서울)
  - 3만원: (翼)재국(당진), 율희(인천)
    - 計: 460,000원
- 통상회비
  - 50만원: 인천총친회
  - 20만원: (翼)일망총친회
  - 10만원: (翼)우식(와성), (按)용준(서울)
  - 5만원: (翼)윤욱(서울), 태형(부여) (按)명용(수원) (鄭)한욱(보성) (按)춘식(서울)
    - 計: 2,055,000원
  - 1만 5천원: (翼)태호(대구)
  - 1만원: (按)태덕(광명) (按)홍식(안동) (文)재희(서울)

### 총렬공탄신 800주년성금

- 50만원: (鄭)파종희 덕목(안양)
- 30만원: (鄭)광남(대구) (鄭)재교(서울) (鄭)종대(울산) (翼)재훈(양주) (按)일성(서울)
  - 計: 2,500,000원
- 임원회비
  - 부회장 20만원: (安)재덕 (翼)선희 (按)상선 (典)승희 (大)경중 (鄭)태호 (翼)재광-영명공종회 (典)춘교-인천총친회 (文)재권-대구총친회
  - 이사 5만원: (按)준희, 천용, 태욱, 태환, 한식, 태욱 (文)수길, 광도 (按)용주, 홍희, 재용, 일성 (鄭)재교 (鄭)종대, 태형 (翼)대구, 명식, 재훈, 만길, (典)태진, 용우 (安)봉기 (大)태만 (正)태인 (典)태일-인천총친회, 관교-판서공종회, 흥선-화성-수원총친회 (翼)창식-영인총친회, 호식-안동총친회 (鄭)태일-수도권총친회
    - 計: 3,300,000원

### 총렬공 향사시 친조금 (2012. 11. 22)

- 100만원: (鄭)병희-대종회회장
- 50만원: 판서공종회
- 30만원: (文)영수(일본), 진주안동김씨문중
- 20만원: 영명공종회 (鄭)광탄문중 (按)판교공종회, 수도권총회
- 10만원: 도평의공파종회, 전서공파종회, 제막공파종회, 익원공파종회, 안평사공파종회, 군사공파종회, 정의공파종회, 개성공파종회, 대구공친회, 안동시공친회, 청주시공친회, 괴산군공친회, 부사공파종회, 문운공파종회, 서문정공파종회, 화성-수원총친회, 증평공친회, (鄭)자산공종회-명맥,
  - 計: 7,030,000(원)
- 정정석봉계, 칠정동주계(鄭)백전종중(翼)재광, 선희(서울), 철희(일산), 창식(용인), 재양(수원) (按)영만(인천), 태형, 용주(서울) (典)춘교(인천) (文)천희(전주), 재호(의정부) (鄭)재영(서울) (正)원식(강릉) (鄭)호식(와성)
- 5만원: (按)상진(대전), 정용(증평), 용우(괴산) (翼)재원(부산), 진식(영주), 성식, 진현(안동) (文)영국(서울) (鄭)영수(영주), 해수(안동) (正)태인(안동) (鄭)재진(대구)
- 3만원: (翼)재식(안동)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 전문 회계사/한글/사할/재실  
보수단 창업 01-95-0042호

대표이사 직 진식  
(총괄) 27개소,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사 대석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공예협회 이사  
경주시 자원봉사 325-19371  
TEL. 052-6430-1239  
C. P. 010-3507-1239  
E-mail: d.undoo@gmail.net

**香 田 園 藝**

경조화환 · 화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448-21  
TEL: 02-445-9777, 6888, 02-783-9166  
FAX: 02-445-6990  
H. P: 010-2490-0707

전국 꽃배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재권

**대종회보 원고 제출**

대종회보는 종친 여러분께서 제출하시는 원고를 정리하여 발간합니다. 대종회보 원고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제출기일은 매 분기 두 번째달 초순입니다. (홈페이지에 매번 공고) 마감후 제출된 원고는 다음번에 게재됩니다.
2.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사전을 적당량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원고 내용은 꼭 종친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무방하오니 많은 원고 제출로 회보의 내실 화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호(119호) 원고는 2013년 3월 30일 마감합니다.